

## 러시아 거주 고려인의 주거에 관한 연구 - 연해주(Yunhaju: 沿海州)지역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Dwellings of Korean Diaspora in Yunhaju of Russia

이영심\*  
Lee, Young-Shim

조재순\*\*  
Cho, Jae-Soon

#### Abstract

Koreans had started moving to Yunhaju in Russia for escaping from the tyrannical rule and famine in 1860's in Korea. It had been veiled and nearly known about Korean's life there because of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 of Russia until the Perestroyka. This study examined the dwellings of Korean Diaspora in Yunhaju through visiting their houses and having an interview. Results of research were as following: 1) Russian traditional houses which Koreans built was followed by Russian style basically and Koreans used the space slightly different way. Korean Diaspora have been adopted Russian life style with keeping their own traditional way of living. 2) Some Korean Diaspora still have been kept traditional heating system 'Ondol' in their houses until now in Yunhaju. Moreover, it is known that people of Central Asia prefer to set 'Ondol' recently as a very specific and expensive heating system. 3) Korean's food style in Yunhaju is the one mixed with Russian, Korean, and Central Asian foods. This study could be a first step to supply for a basic information for studying of Korean Diaspora in Russia and it is needed to take more deep research in other areas in Russia.

Keywords : Korean Diaspora, Yunhaju, Russian life style, traditional way of living, Ondol

주요어 : 한인동포, 연해주, 러시아 생활양식, 전통생활양식, 온돌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 동포, 즉 고려인들이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초반으로 현재까지 약 140여 년에 이르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초기의 이주 한인들은 대부분 극도의 궁핍을 피해 국경을 넘은 농민들이었으나 20세기 초부터는 일본의 압제에 항거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의 이주가 시작되었고 일제의 한일합방 이후에는 그 수가 더욱 증가하였다. 연해주는 1860년 북경조약에 의해

공식적으로 러시아 영토로 인정되었으며 서북쪽으로는 아무르강, 동쪽으로는 따타르스키 해협과 동해를 경계로 하고 있고 남서쪽으로는 두만강 하류에 인접해 있다. 1860년 전후에 연해주 지역에 정착했던 고려인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어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1917년 러시아 혁명 시에는 볼셰비키의 소비에트 정권 수호를 위해 영웅적으로 투쟁하였다. 그러나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동년 8월에 소련과 중국이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러시아는 연해주에 거주하는 고려인이 일본을 도울 적성 민족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스탈린에 의한 강제 이주는 1937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시행되었으며 이때 약 18여만 명에 달하는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 이후 1991년에 구 소련이 와해되고 구 소련에 속해 있었던 공화국들이 각기 독립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Post Doc. 연구원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기초과학연구사업 특정기초연구(과제번호: R01-2002-000-00252-0)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본문의 실측도면과 사진들은 연구자가 직접 작성, 촬영한 것임.

하면서 각 독립공화국들의 회교 민족주의에 의해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은 또 다시 시련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수의 고려인들이 선조들의 뿌리가 있는 연해주로 재 이주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이주사와 독립 운동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며 고려인들의 주거 건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러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오랫동안 한국과 밀접한 접촉이 없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면에서 한국의 전통 풍속을 지키고 살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거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된 실체이다. 또한 주거를 문화의 한 영역으로 보았을 때 주거 문화는 한 민족이나 사회집단의 정신세계와 생활양식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영역으로서 그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발전되어 왔으며 그 안에 이미 미래를 담고 있는 생활문화로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강영환, 1991).

본 연구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주거와 주생활을 탐색하여 한국의 주거문화가 러시아의 주거문화와 절충하여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고려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전통주거를 어떻게 지속시켜왔는지 그리고 러시아의 주거형식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하여 왔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어떠한 요소들이 가장 강하게 지속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그들의 생활모습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러시아 거주 고려인의 주거사를 정립하는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첫 단계로 러시아에서 고려인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중앙아시아에서 재 이주해오는 고려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연해주 지역을 그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03년 6월 24일-7월 5일 사이에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연해주 지역 중 중심적인 도시이면서 고려인의 거주 비율이 높은 블라디보스톡(Владивосток), 우스리스크(Уссуийск), 파르티잔스크(Партизанск) 등이었다<그림 1>. 본 연구의 조사 지역과 조사 항목 선정은 2003년 4월 20일-4월 30일 사이



그림 1. 연해주의 조사대상 지역

에 행한 1차 조사 시 고려인 마을 터의 답사 결과와 1937년 이전에 연해주에 거주했던 고려인들에 대한 면접 내용을 정리, 분석한 결과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려인 9가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려인 5가구였으며 각 방문한 가옥 모두 실측과 사진 촬영을 하였고 주부를 면접하였다. 면접에 사용한 질문지의 내용은 공간구성 및 사용방식과 더불어 취침, 손님접대, 단란 등의 행위에 대한 좌식과 입식 정도, 일상생활에서의 러시아 관습과 한국 관습의 수행 정도, 음식과 의복에서 한국적인 요소의 잔존 정도,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주거관리비, 난방방식, 그리고 이웃 고려인이나 러시아 인과의 친분 정도 등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II. 연구 결과

주거특성과 주거생활이 주택 유형에 따라 크게 달

표 1. 연해주 지역별 인구분포 (단위: 명)

지역	기존거주자	재이주자	합계
연해주	10,760	7,500	18,260
우스리스크	2,500	2,500	5,000
빨치산스크	1,500	1,500	3,000
나훗카	1,800	500	3,000
블라디보스톡	2,000	-	2,000
아르쑸	-	3,000	3,000
스파스크달리	2,000	-	2,000
달네고르스크	720	-	720
아르세니예프	240	-	240

표 2. 연해주에 거주하는 조사대상 고려인의 특성

주택 형태	이름	성별	연령	가족구성	전 주거지	현 거주지 이주시기	주택소유 여부	난방 방식
단독 주택 (땅집)	정연순	여	58	부부,아들내외,손녀1	사할린	2000	자가	페치카
	김베네라	여	46	부부,아들내외,작은아들,딸2	우즈벡스탄	1990	자가	페치카
	리따냐	여	70	본인, 아들내외, 손자1,손녀1	우즈벡스탄	2001	자가	페치카
	김웨라	여	77	본인, 딸1	카자흐스탄	1989	자가	페치카, 온돌
	박알렉산더	남	58	혼자 사심	카자흐스탄	1956	자가	페치카, 온돌
	리올라	여	64	본인, 딸, 손녀2	카자흐스탄	1956	자가	페치카, 온돌
	전인수	남	80	부부, 아들내외, 손자1, 손녀2	우즈벡스탄	1989	자가	페치카
	김일투사	남	74	부부	타쉬켄트	1961	자가	페치카
아파트 (층대집)	송애화	여	50	부부, 아들1	하바롭스크	1993	자가	페치카, 벽난로
	박엘레나	여	70	본인, 아들내외, 손자1	타쉬켄트	1995	자가	중앙 난방
	김시마	여	66	본인, 아들내외, 손자2	타쉬켄트	1997	자가	중앙 난방
	민을가	여	76	본인, 아들부부, 손자부부, 손녀1, 증손자1	우즈벡스탄	1997	자가	중앙 난방
	송지나	여	53	본인, 아들 2	하바롭스크	1993	자가	중앙 난방
	김스웨따	여	55	부부, 아들내외, 작은아들	사할린	1968	자가	중앙 난방

라 조사결과를 주택 유형에 따라 단독주택과 아파트로 분류하였다.

1. 단독주택

1) 단독주택의 개요

보통 땅집으로 부르는 러시아의 단독주택은 각각의 주택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주택 본체를 중심으로 앞뒤에 텃밭과 가축우리, 연료창고, 반야(목욕실), 야외 화장실, 야외 샤워장 등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다. 러시아인이 건축한 주택 뿐 아니라 고려인이 지은 주택 역시 이와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었다.

집을 둘러싼 텃밭은 야채가 비싼 러시아에서 감자, 오이, 토마토 등을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중요한 터전이 된다. 양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 내다 팔기도 하며 혹은 그 자체가 유일한 경제원인 집도 있다. 집 주변에 농사지를 땅을 임대할 수 없는 도심 아파트 거주자는 교외에 주말농장(다차: ДАЧА)을 만들어 수시로 가서 농사를 짓는다. 주말농장은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집과 집 앞뒤에 있는 0.6 ha 정도의 텃밭으로 구성된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러시아인과 고려인은 보통 개들을 키운다. 예전에는 개가 손님의 방문을 알리는 벨(bell)의 역할을 했는데 그 필요가 없어진 최근에도 수 마리의 개를 많이 키우며 이외에 양, 닭, 염소, 돼지, 소 등의 가축을 함께 키운

다. 주택 마당 한쪽에는 페치카의 연료인 나무와 석탄을 쌓아두는 창고가 있으며 항상 일정한 양을 채워둔다. 이는 항상 풍족한 상태를 유지하는 러시아 사람들의 습관에 의한 것이다. 러시아 단독주택의 외벽은 추위를 막기 위해 매우 두꺼우며 창문은 대개 이중창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꽃가꾸기를 매우 좋아해 이중창의 사이에는 꽃 화분 등으로 장식을 한다. 바깥쪽 창에는 스타부니(СТАВНИ)라는 나무문이 달려있는데 각 주택마다 다양한 전통 문양과 색으로 장식되어 있다<그림 2>. 이 덧문은 햇볕을 막고 비바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서 잠그도록 되어 있다.



그림 2. 러시아 전통 나무덧문 스타부니

2) 단독주택의 구성 요소

러시아 단독주택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계획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sup>.

(1) 현관(그렐조: КРЬЛЬЦО)

러시아의 주택은 밖에서 보았을 때 본채에서 현관 부분이 분리되어 앞으로 튀어나온 형태를 하고 있다. 이는 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 부분은 신발장을 두거나 혹은 신발을 벗어두는 곳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그림 3>. 러시아인과 고려인들 모두 공통적으로 이곳에 신발을 벗어두고 출입하고 있었다.

(2) 주택 내 베란다(베란다: ВЕРАНДА)

현관 부분인 그렐조에서 거실이나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공간으로 사방을 유리창으로 마감하여 많은 양의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대개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데 주택에 따라서는 이 공간을 여름에 사용하는 여름 부엌과 식당으로 이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살림도구 혹은 곡식 등을 저장하는 장소로 사용하기도 한다<그림 4>.

(3) 페치카(ПЕЧКА)

페치카는 러시아의 전통 난방방식으로 러시아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조리와 난방을 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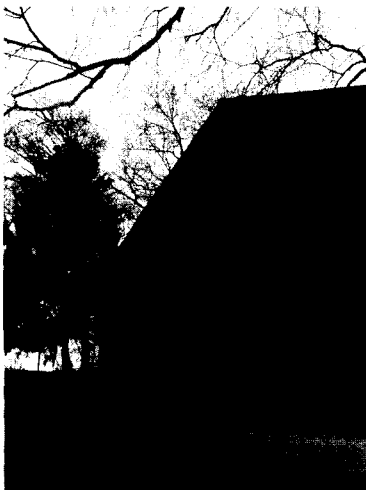


그림 3. 러시아 현관, 그렐조

는 페치카의 연료는 전통적으로 석탄과 나무이며 최근 들어서는 전기와 가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페치카에서 가열된 뜨거운 공기는 페치카와 연결된 벽안에 만들어진 공기통로를 따라 벽을 데우면서 주변의 방들을 따뜻하게 한다. 최근에는 페치카에서 물을 데워 라디에이터를 통해 온수난방을 하기도 한다. 페치카의 굴뚝 역할을 하는 돌출 되어있는 벽의 일반적인 형태는 사각형이며 이 외에 사방의 벽 모서리를 곡선으로 둘러싸는 기둥형 등이 있다. 조사대상 고려인들은 전기를 이용하는 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무와 석탄을 연료로 하여 페치카를 사용하고 있었다.

(4) 여름부엌(렛나야 꾸흐냐: ЛЕТНЯЯКУХНЯ)과 겨울부엌(짐나야 꾸흐냐: ЗИМНЯЯКУХНЯ)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여름부엌과 겨울부엌을 구분해서 사용한다. 겨울부엌은 주택의 본채 안에 러시아의 전통적인 난방방식인 페치카가 있는 공간이다 <그림 5>.



그림 4.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는 주택내 베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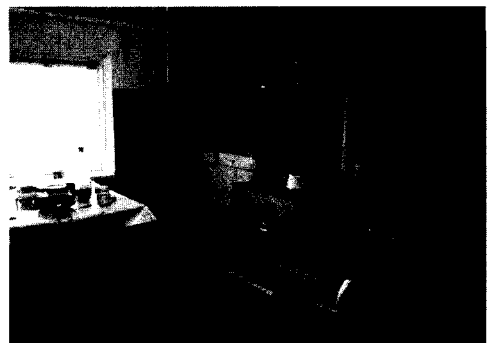


그림 5. 난방과 조리겸용의 페치카가 있는 겨울 부엌

1) 본 연구 결과, 고려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은 전통적인 러시아 단독주택의 구성요소들을 대부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고려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대한 내용을 러시아 단독주택의 구성요소에 의거하여 서술하였다.



그림 6. 별채로 분리되어 있는 여름 부엌

여름부엌은 마당 한 쪽에 별채로 지어 사용하는데 조리전용 페치카 혹은 이동용 조리열원을 사용하여 조리를 하며 이곳에 식탁을 두고 식사를 한다<그림 6>. 러시아인들이 전통적으로 여름부엌과 겨울부엌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는 반면 조사대상 고려인들은 면적이 더 넓은 쪽 혹은 물을 사용하기 편리한 쪽에 있는 부엌을 여름과 겨울에 겸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5) 목욕실(반야: БАНЯ)

반야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목욕시설이자 사우나 시설로 주택 내에 혹은 별채로 구성한다<그림 7>.

반야 안에는 보통 전용 페치카가 있으며 이것으로 물을 데우고 내부를 뜨겁게 만든다. 내부는 나무를



그림 7. 러시아의 전통 목욕실인 반야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널판을 만들어 앉거나 혹은 누워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페치카 옆에는 큰 자갈을 쌓아놓아 이것이 뜨겁게 달구어지면 물을 끼얹어 여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증기를 쐬어가며 목욕을 한다. 또한 참나무 잎을 묶어서 말려 두었다가 뜨거운 물에 불려 이것으로 몸을 두드려가며 마사지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고려인들이 주택 내외에 반야를 갖추고 있었고 가끔 친척이나 이웃이 빌려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6) 저장시설(뽕그렙: ПОГРЕБ)

러시아 주택은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는 긴 겨울에 대처하기 위하여 저장공간이 발달되어 있다. 이곳에는 감자, 양파 등의 기초 식량을 보관할 뿐 아니라 겨울 내내 먹기 위해 만든 저장 식품들을 저장하기도 한다<그림 8>. 저장 공간은 주택 내에 있는 마루 밑 공간을 이용하기도 하며 별채로 만든 창고에 반 지하공간으로 계획하기도 한다. 조사대상 고려인들 모두 충분한 저장공간을 갖추고 있었으며 어떤 경우는 창고 안에 김치독을 묻는 공간을 따로 갖추고 있기도 하였다.

(7) 개별 텃밭(아가로드: ОГОРОД)

러시아 주택은 주택을 둘러싸고 사방에 개별 텃밭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뒷마당에 넓은 텃밭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경작물은 감자, 토마토, 오이, 고추, 가지, 배추 등으로 대부분의 러시아 가정은 이 텃밭을 통하여 채소를 자급자족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생계 수단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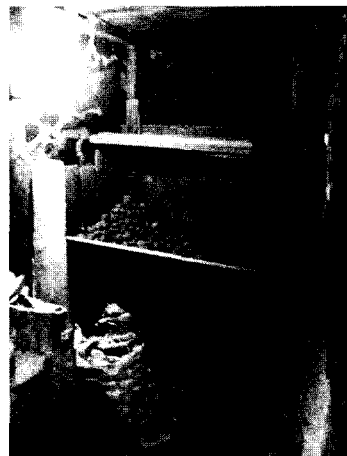


그림 8. 지하 저장 시설

텃밭에서 닭, 개, 염소, 양 등의 가축을 키운다.

(8) 야외 화장실(뚜알렛: ТУАЛЕТ)

대부분의 러시아 주택은 주택 뒤 텃밭 주변에 나무로 만든 야외 화장실을 두고 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화장실을 주택 밖에 재래식으로 설치하며 구덩이가 다 차면 흙으로 덮고 새로 파서 사용한다. 화장실을 주택 내부에 계획하기 시작한 것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주택 내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라도 주택 뒤 텃밭에 나무로 만든 야외 화장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는 편리함 뿐 아니라 전통적인 주거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9) 야외 샤워시설(두쉬: Душ)

러시아 주택의 마당 한쪽에는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 크기의 나무박스를 세워두고 그 위에 물통을 올려놓은 야외 샤워 시설이 있다<그림 9>. 이는 빗물을 받아서 혹은 물을 넣어서 태양열로 물을 데워 여름철에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야외 샤워시설은 여름철에 발일을 한 후 마당에서 바로 샤워를 하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한다. 혹은 반야 건물의 창문에 물통을 달아놓아 햇볕으로 데운 물을 안에서 호스로 받아서 샤워하기도 한다.

(10) 우물시설(칼로데치: КОЛОДЕЦ)

러시아의 단독주택은 주택 내에 수도시설이 완비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외부에서 물을 길어와 사용한다. 집안에서의 물 사용뿐 아니라 보다 편리하게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 마당 한쪽에 우물을 파서 사용하기도 한다.

(11) 야외 베란다(БЕРАНДА)

러시아 주택의 마당 한쪽에는 가족 혹은 친구들과의 모임에 사용하기 위해 야외 베란드를 짓기도 한다. 이 야외 베란다는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할 때 식사장으로 사용하며 평소에 모임과 대화 장소로 사용하기도 한다.

(12) 구들(온돌)

연해주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온돌이라는 말 보다는 ‘구들’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단독주택중 주택의 일부에 구들을 설치한 경우는 파르티잔스크에 위치한 3집이었다. 김웨라 할머니 댁과 리올라 할머니 댁은 원래 여름 부엌으로 계획한 공간에 구들을 만든 경우였다. 부엌 바닥의 한 구석을 밑으로 파 아궁이를 만들고 구들 바닥에는 벽돌을 이용하여 뜨거운 공기가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는데 구들 바닥의 제일 윗 바닥 높이는 부엌 바닥에서 약 25 cm의 높이였다<그림 10>. 연료는 나무나 석탄을 사용하고 아궁이에서 조리를 겸할 수 있으며 불을 때지 않는 여름에는 위에 나무 덮개를 덮어 가려놓는다.

박 알렉산더 할아버지 댁의 구들은 두 할머니 댁과는 다른 형태로서 방바닥에 온수 파이프를 묻고 페치카를 방바닥 한쪽 아래에 설치하였다<그림 11>. 나무나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페치카를 때면 방바닥이 데워지는데 이 열은 그 방 뿐만 아니라 붙어있는 옆방의 쪽 구들(강)까지 데울 수 있게 되어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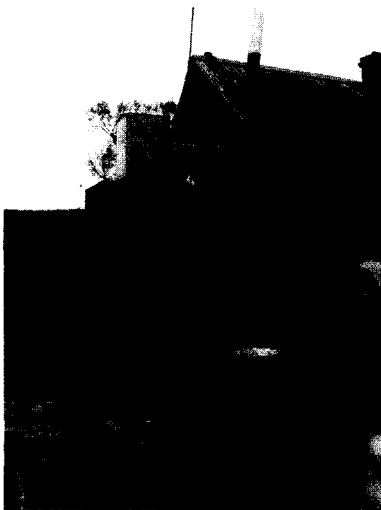


그림 9. 야외 샤워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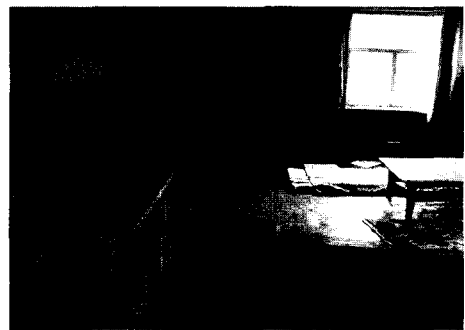


그림 10. 난방과 조리를 겸하는 구들의 예 (김웨라 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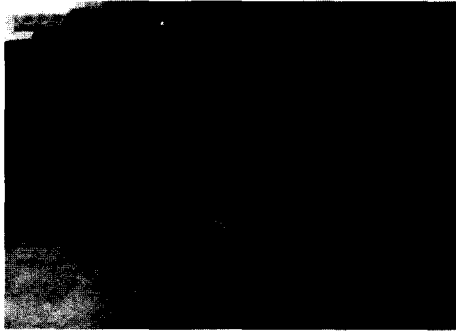


그림 11. 바닥에 온수 파이프를 설치한 구들의 예 (박 알렉산더 덕)

다. 세 경우 모두 구들방을 식사나 휴식, 담소를 즐기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 고려인들은 취침은 반드시 침대나 소파에서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연해주에서 구들을 놓은 고려인들은 모두 중앙아시아에서 오래 전에 이주해 왔으며 구들을 놓는 방법은 할머니 대부터 전해온 방법에 의한다고 하였다. 중앙아시아는 좌식 문화인 이유로 고려인의 구들이 전승되기에 좋은 환경이었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최근 중앙아시아 민족들의 구들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고려인 노인들이 어렸을 때 구들에서 거주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여건만 허락되면 구들을 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젊은 세대일수록 구들에 대하여 잘 모르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한다.

### 3) 단독주택 거주 고려인의 주생활

조사대상 고려인들은 모두 현관입구에서 신발을 벗는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현관 옆에 신발장을 따로 두어 정리하였다. 러시아인들도 전통적으로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고 생활한다고 하는데 이는 러시아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방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려인들의 취침은 침대 혹은 소파 겸용 침대를 이용한 입식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러시아는 좁은 방을 넓게 사용하기 위하여 소파 겸용 침대의 사용이 매우 일반적이며 소파에서 취침하는 경우도 많은 듯 하였다. 주택 내에 구들을 놓은 경우에도 구들방은 식사실 혹은 가족들의 단란 장소로 사용되며 잠을 자는 장소로는 인식하고 있지 않아 취침은 입

식 형태로 자리잡은 것으로 파악된다.

식사는 전통적인 러시아 관습에 따라 부엌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대단위의 가족모임이나 손님 접대시에는 거실 등의 넓은 장소에 큰상을 띄고 앉는다고 하여 아직까지 좌식의 관습이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큰상에 앉을 때에는 모포를 길게 접어 깔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앉기도 하는데 이는 중앙아시아의 전통에 의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바닥에 카펫을 깔았으며 침대 옆벽에 카펫을 걸어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바닥에 카펫을 까는 것은 발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벽에 거는 이유는 찬바람을 막아주고 방음과 장식적인 효과를 위한 것이다. 러시아 거주 고려인들은 대부분 1950년대 이후에 세탁기, TV, 청소기 등을 필수 품목으로 갖추고 있다. 세탁기를 두는 장소는 욕실이 좁은 경우에는 부엌, 거실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세탁물을 말리는 장소 역시 부엌, 거실, 마당 등으로 다양하였다.

조사대상 고려인들은 모두 김치와 된장을 집에서 직접 담가먹거나 된장은 일부 사서 먹고 있었다. 주로 밥을 주식으로 하고 있으며 음식 종류는 러시아 식과 한식 그리고 중앙아시아식이 모두 혼합된 형태였다. 조사대상자들 모두 젓가락 대신 포크(pork)를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한복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있는 경우에도 새해 행사 등에 입거나 혹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입는다고 생각하여 아껴두고 있었다.

한 지역에 오래 산 고려인들은 주위의 러시아인들과 왕래하면서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해 온 고려인들은 이웃의 러시아인들과 거의 왕래가 없이 지내고 있었다.

단독주택 거주에 소요되는 주거비는 전기세와 물세 그리고 토지세 등이다. 전기세와 물세는 계량기로 측정하는데 전기세는 1kw당 95카페이카(약 40원)이며 보통 한달에 100kw 정도 사용하고 있었다. 토지세는 12×10m<sup>2</sup>까지는 무료이며 그 이상에 대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한다. 또한 여자는 55세 남자는 60세부터 노후 연금을 받으며 각종 공과금과 연료에 대하여 반액 할인을 받는다. 그래서인지 단독주택 거주노인들의 경우 모두 주거비 지출액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주택의 난방방식은 모두 폐치카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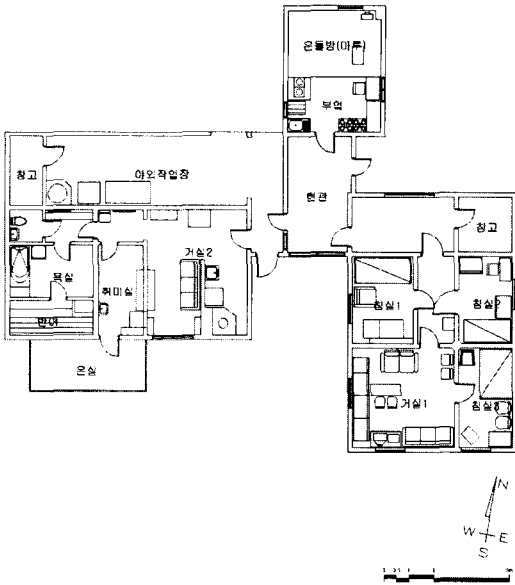


그림 12. 파르티잔스크 김웨라 맥

식으로 나무와 석탄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데 석탄은 지역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나 보통 1톤에 600루블(25,000원 정도)정도이며 한 겨울에 보통 2톤 정도 사용한다고 한다. 취사는 전기와 가스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sup>2)</sup>.

2. 아파트

1) 아파트의 개요

러시아는 1985년 사회개혁운동인 페레스트로이카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모든 주택을 건설하고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도시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사유주택을 국유화하였으며 대량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일반적인 주거형태는 커뮤널 아파트(Communal Apartments)였는데 이는 여러 가족이 한 집에서 부엌과 욕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형태였다.

1950년 이후 주택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55

년에 국가의 주도로 시작된 티피칼 프로젝트(Typical Project)였다. 이에 따라 외형이 단순하고 색상과 디자인이 통일된 같은 모양의 아파트가 대량으로 생산되었고 이는 주택 부족을 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티피칼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계획안은 6-7개의 시리얼(Serial)로 구성되는데 모든 시리얼은 모스크바에서 계획하고 다시 각 지역마다의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중앙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폐치카로 난방을 하였으며 중간에 중앙난방시설로 교체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에 후르시초프의 집권 하에 시행된 티피칼 프로젝트는 '후르쇼프카(XPVIIEBKA)'라 불리었는데 대부분 5층 아파트로 부엌 면적이 5-6㎡로 작았다. 이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점심, 저녁을 보통 직장에서 해결하여 부엌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욕실과 화장실이 한 공간에 같이 있었으며 부엌은 거실을 통하여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다. 1964-1972년 사이에 시행한 계획안은 욕실과 화장실이 분리되고 부엌의 출입문이 별도로 생긴 것이 특징이었다. 주택의 분배는 가족 구성에 따라 그리고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분배되는 방의 수와 주택의 규모를 달리하는 등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였다.

1980년대 이후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되면서 주택에 사유재산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1985년에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된 이후에는 국가 차원에서의 주택 배분이 종료되고 그 시점에 거주하고 있었던 국영주택의 거주자들에게 해당주택을 무상으로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불하함으로써 대부분의 국영주택이 사유화되었다. 1990년 이후에는 기업체에서 직원 아파트를 대량으로 신청하여 건설하였는데 대부분 83 시리얼을 기본 평면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9층의 벽돌 혹은 콘크리트 아파트가 일반화되었으며 부엌과 방의 면적이 커지고 외벽으로 튀어나왔던 베란다가 벽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바뀌었으며 아파트 전체의 모양이 직선형에서 곡선형으로 변화하였다<그림 13>.

2) 아파트의 구성요소

(1) 아파트의 진입부분

러시아 아파트의 진입 부분은 단독주택의 그릴쵸와 유사하게 앞으로 분리되어 튀어나온 형태를 하고 있으며 진입부분의 문은 이중문으로 되어 있다. 이

2)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경우 여자는 55세, 남자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러시아 거주 노인의 노령 연금액은 일한 기간, 직업, 국가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서 다르다. 러시아의 경제개방 이후 노령 연금액도 삭감되어 대부분의 노인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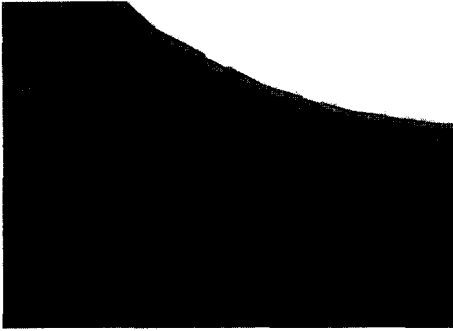


그림 13. 1990년대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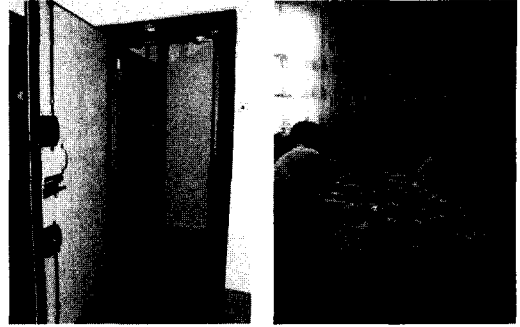


그림 15. 이중 현관문

그림 16. 거실에서의 손님접대



그림 14. 아파트의 진입부분

는 추운 날씨에 대비한 것으로서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또한 건물 위에서 떨어지는 얼음 조각으로부터 거주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2) 현관

현관 문은 목재 혹은 철재를 사용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는 현관 문 바깥쪽으로 방범을 위해 철제 문 하나를 더 설치하기도 한다. 고려인은 물론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이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관 입구에는 신발을 신고 벗는 부분이 따로 계획되어 있지 않아서 바닥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두거나 간이 신발장을 마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족이 많은 집은 현관 벽에 수납공간을 계획하여 신발장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 (3) 거실

거실은 가족들의 단란을 위하여 그리고 손님을 접대하는 중심 장소로 소파와 탁자, 장식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파는 거실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가

구이며 가족이나 손님이 와서 묵을 경우에는 침대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할 경우 거실은 식사실의 역할을 하는데 큰 탁자들을 붙여서 사용하며 소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의자로 사용된다.

#### (4) 침실

침실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가구는 침대로 대부분의 고려인들이 입식 취침을 하고 있다. 침대 옆이나 머리맡에는 카펫을 걸어두는데 이는 장식을 겸한 보온의 역할을 한다. 벽에 카펫을 거는 것은 러시아의 전통이나 최근에 들어와 카펫 대신에 그림을 거는 식으로 그 경향이 바뀌어가고 있다.

#### (5) 부엌

부엌은 입식 조리대와 식탁, 의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경우에는 부엌 바닥에 앉아서 식사 준비를 하기도 한다. 부엌에서 식사하는 것은 러시아의 전통으로서 대부분의 고려인들이 많은 손님이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엌에 식탁을



그림 17. 카펫을 걸어 놓은 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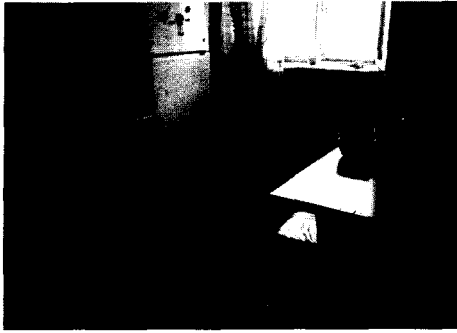


그림 18. 부엌의 모습

두고 이 곳에서 식사를 한다. 부엌의 면적이 넓지 않아도 가족원들이 제각기 식사하는 시간이 다르므로 대부분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다.

(6) 욕실

최근에 지은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변기와 욕조, 세면대를 한 공간에 함께 계획하고 있다. 대부분의 고려인들이 욕실에서 손빨래를 행하며 욕실 면적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곳에 세탁기를 두고 사용한다.

(7) 베란다

거실 옆 베란다는 대부분 세탁물을 널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수납하는 장소로 사용한다. 또한, 많은 고려인들이 창가 옆 혹은 베란다는 화초를 키우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3) 아파트 거주 고려인의 주생활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모두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현관의 공간이 충분할 경우에는 신발장 혹은 수납장을 계획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바닥에 신발을 정리해 두었다<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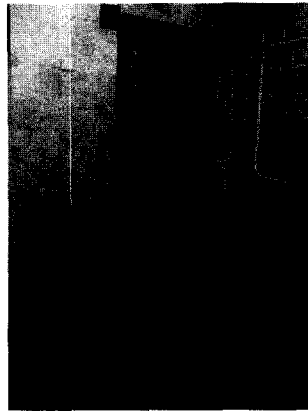


그림 21. 아파트 현관의 신발장

림 21>. 취침은 공간 활용을 위해 접이식 간이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침대를 사용하는 입식 형태였다.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들은 모두 어렸을 때 구들에서 거주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인지 지금도 식탁에 앉으면 양반 다리를 하고 앉게 되며 구들을 간 집을 보면 부럽다고 하였다. 나이가 들어 갈수록 구들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하였다. 식사는 러시아의 관습에 따라 부엌에서 하고 있었는데 대개 가족원의 식사시간이 다르므로 공간이 좁은 경우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다. 손님 접대 시 두 집은 거실에 상을 펴서 사용하였으며 세 집은 접이식 식탁을 사용하고 있어 좌식과 입식이 병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카펫을 바닥에 깔고 벽에도 거는 러시아식의 관습은 아파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그림 17>.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 카펫을 사용하는 대신에 바닥에 온수파이프를 설치하고 마루를 깔기도 하며 먼지가 많이 앉는다는 이유로 벽에 카펫을 걸지 않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세탁기를 대부분 욕실에 두었으나 공간이 좁은 경우에는 방에 두거나 마루에 두었다가 사용 시 욕실로 옮겨 사용하기도 하였다. 세탁물은 대부분 베란다에서 건조하였으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마당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러시아의 아파트는 모두 중앙난방방식이나 화력발전소에서 70도씨 정도로 공급되는 온수는 아파트에 들어올 때 20도씨 정도로 식어버려 대체적으로 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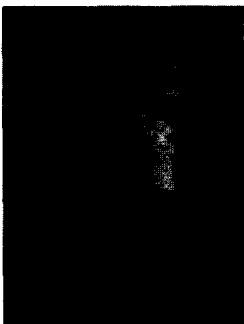


그림 19. 욕실의 내부 모습



그림 20. 거실에서 본 베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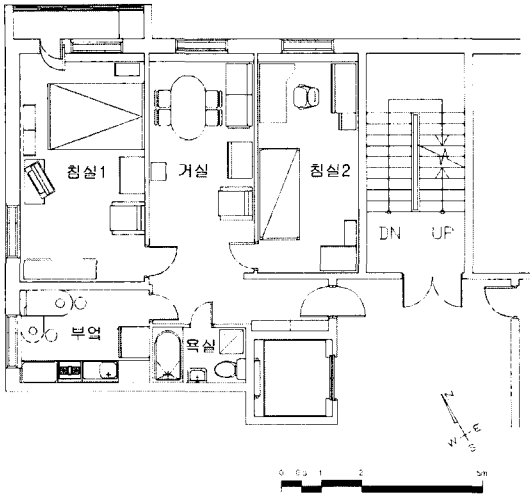


그림 22. 블라디보스톡 송지나 맥

이 잘 안되며 따라서 대부분 이동식 난방기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몇몇 아파트에서는 중앙난방 시스템을 가동하기 전에 사용한 폐치카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러시아 가정에서 내는 아파트 관리비의 내용은 각종 수리비와 청소부 인건비, 쓰레기장 관리비, 쓰레기 운반비, 엘리베이터 운영비, 냉·온수비, 수리비 적립금 등이며 난방비는 겨울에만 청구된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려인들 역시 매일 밥과 된장, 김치 등을 먹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집에서 직접 담고 있었다. 겨울이 긴 러시아에서는 오이, 가지, 토마토, 고추 등으로 병조림을 해서 저장해 놓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 역시 많이 담가서 침대 밑 서늘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자녀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있었다. 음식의 종류는 한식과 러시아 식, 중앙아시아 식이 모두 혼합되어 있었으며 조사대상자 모두가 숟가락과 포크를 사용하였다. 아파트 거주 고려인들은 이웃 러시아인들과는 거의 왕래가 없었으며 그 반면 주변의 고려인들과는 함께 생일파티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등의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대부분 주변에 사는 형제들과 왕래를 자주 하며 최근 들어서는 한인 교회가 고려인들의 새로운 만남의 장소가 되고 있었다.

### III. 결과 요약 및 제언

#### 1.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주

거 형태는 크게 단독주택과 아파트로 분류되었다. 러시아는 1985년 페레스트로이카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국가에서 주택을 배분하였으며 이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엄격하게 시행되었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대부분 주택의 대량 공급을 위해 1955년부터 실시한 티피칼 프로젝트(Typical Project) 방식으로 공급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단독주택의 경우 러시아인에 의해 건축된 경우와 고려인이 직접 건축한 경우가 있었는데 두 경우 모두 기본적으로 주택 본체를 기본으로 하여 텃밭과 가축우리, 연료창고, 반야, 야외 화장실, 야외 샤워실 등의 부가 시설로 구성하는 전통적인 러시아 주택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러시아인과 동일한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주생활은 세부적인 면에서 러시아인들과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러시아식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러시아인과 고려인들간의 주생활 방식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각 민족 간의 정체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흥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 뿐 아니라 러시아 인까지 포함하는 심층적인 주생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고려인이 건축한 단독주택에 러시아주택의 전통적인 구성요소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현상은 기후 특성과 생활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필요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여름부엌과 겨울부엌을 뚜렷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폐치카를 변형하여 바닥을 데우는 시설을 만들어 사용한다는 점 등은 타문화화를 수용, 계승하는 가운데 전통 문화가 공존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고려인들의 취침이 침대와 소파를 이용한 입식 형태로 자리잡은 반면 가족모임이나 손님맞이는 바닥상을 펴는 좌식 형태를 유지하는 점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겠다. 아파트의 거주자들 역시 좌식과 입식 형태를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해주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대부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다시 연해주로 이어지는 이동경로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의, 식, 주생활에는 한국식과 러시아식 그리고 중앙아시아식이 혼합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러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생활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사적인 이동 경로를 포괄할 수 있는 세부

적인 지역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3. 연해주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주거에서 한국적인 주거 요소로서 러시아인의 주거와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은 구들이었다. 구들은 대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했다가 다시 연해주로 오래 전에 재이주해온 고려인들이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구들방은 집안의 제일 윗어른이 기거하는 방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현재 구들방은 가족 단란과 모임 그리고 식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 연해주 지역의 구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방법으로 만들고 있었으며 현재 구들은 중앙아시아와 연해주 지역을 제외한 사할린 등지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구들이 고려인의 주거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은 중앙아시아가 좌식 문화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인들의 구들에 대한 선호 정도는 매우 높으며 최근 들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는 주택 내에 구들을 놓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반면에 젊은 고려인 세대는 생활하기 편리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구들은 정서면에서 그리고 생활 면에서 고려인들에게 한국인임을 자각할 수 있게 해주는 강한 주생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연해주 지역에서 구들의 축조방법이 전승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으로는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주택 속에 구들을 비롯한 한국적인 주생활 요소들이 어떻게 적용, 계획되고 있는가에 대한 심층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4. 연해주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어떠한 주택 형태에 거주하건 대부분 김치와 된장을 집에서 직접 담가먹거나 일부는 사서 먹고 있었으며 밥을 주식으로 하고 있었다. 겨울이 긴 러시아에서 각종 야채를 이용한 병조림은 필수적인데 이는 고려인들에게도 역시 중요한 음식이었으며 저장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침대 밑에 이를 보관하여 자녀들에게도 나누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음식의 종류는 러시아식과 한식

그리고 중앙아시아식 등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섞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려인들이 김치와 된장 이외에 지키고 있는 전통 음식은 과줄(산자), 찰떡, 증편 등으로 주로 잔치와 제사, 손님초대 등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역시 구전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연해주 지역에서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주생활을 분석하여 러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기초 연구에 불과하다. 앞으로 본 연구 결과를 기본으로 조사지역의 범위를 보다 넓혀 고려인의 거주 비율이 높은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모스크바 등지의 중앙 러시아지역까지도 포괄하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1. 강영환(1991),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지문당.
2. 대외정책 연구원(1994), 러시아극동지역 편람
3. 이광규(1998),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집문당.
4. 이상근(1996), 한인 노령이주사 연구, 탐구당.
5. 현규환(1953), 한국 유이민사, 어문각.
6. 이채문(2000), 한인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 역사와 이론, 슬라브학보 제15권 1호.
7. 이상해·이진현(2003), 연해주 지방 한인주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3(1).
8. 이수경 외 3인(1996), 재소 한인사 개요, 건국대학교 학술지 제40집.
9. 이영심·조재순(2003), 문헌자료를 통해 본 러시아 거주 한인들의 주거, 대한가정학회 제 56차 춘계학술대회논문집.
10. 조재순·이영심·이정규·이선희(2003),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 정착촌으로 재이주한 재소한인 가족의 주거생활 사례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1권 제3호.
11. 이영심·조재순·이상해(2003),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한인주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7호.
12. А.И.Петров(2001),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 РОССИИ 1897-1917 гг., ДВОРАН
13. А.И.Петров(2000),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НА ДАЛЬНЕВОСТОКЕ РОССИИ 60-90-е годы? X века, ДВОРАН.
14. Primorski State Museum(1992), Old Vladivostokm Utro Rossii.
15. Жилищный Кодекс,ЛАИНС Владивосток 2003г.